

2023년 2/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3. 3

창원상공회의소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3. 3. 6 ~ 3. 29
- 분석대상 : 156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39	117	36	120		
비중	25.0%	75.0%	23.1%	76.9%		
업종별(완성품 기준)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26	28	47	32	12	11
비중	16.7%	17.9%	30.1%	20.5%	7.7	7.1%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3년 2분기 전망BSI '100.6', 1분기 실적BSI '74.4'

-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공급망 및 물류 불안 해소,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경기호전의 기대감 반영으로 지수가 강보합을 나타냈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수익률 악화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완전한 경기회복을 점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 항목별 전망BSI, 매출액(106.4), 사업장·공장 가동(101.9), 공급망 안정성(93.6) 설비투자(88.5), 영업이익(87.8)
- 업종별 전망BSI, 운송장비(132.1), 기계장비(102.1), 기타운송장비(100.0), 철강금속(90.6), 전기전자(73.1), 기타(109.1)

● 전년 대비 목표치, 매출액은 상향으로 설정한 비중이 높았던 반면, 영업이익은 하향으로 설정이 높은 비중 차지

[전년 대비 매출액 목표]

- 크게 상향(9.0%), 소폭 상향(28.8%), 지난해 수준(27.6%), 소폭 하향(22.4%), 크게 하향(12.2%)
- 목표상향 응답률, 대·중견기업(51.2%)이 중소기업(33.4%) 보다 높은 비중

[전년 대비 영업이익 목표]

- 크게 상향(7.7%), 소폭 상향(21.2%), 지난해 수준(34.0%), 소폭 하향(25.6%), 크게 하향(11.5%)
- 목표상향 응답률, 대·중견기업(46.1%)이 중소기업(23.1%) 보다 높은 비중

● 상반기 최대 리스크, 원자재 가격상승(28.9%), 물가·금리 인상(24.7%)

- 이어서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3.2%),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1.2%), 원부자재 수급불안(11.0%), 지정학적 리스크(6.7%) 순
- 원부자재 가격상승, 물가·금리인상 우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으로 응답
- 수출기업, 주요수출국 경기침체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응답

● 중국 리오프닝, 창원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장 경영실적(매출, 수익 등)에는 부분적인 영향

- 창원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과의 거래·협력 형태가 과거와 다른 양상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리오프닝의 효과가 우선 공급망 안정, 물류차질 완화 등 환경개선에 더 많은 영향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매출, 수익의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에는 보수적 반응
- 중국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은 창원경제에 도움이 된다(56.8%), 영향 없다'(32.3%), 도움 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11.0%)
- 경영실적에 영향, 매출·수익 등에 긍정적 영향 미친다(32.2%), 영향 없다(57.4%), 오히려 부정적이다(10.3%)

● 중국 리오프닝, '부품·소재의 공급망 안정' 기대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우려

- 중국 리오프닝의 긍정적 영향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39.2%),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26.2%), 물류차질 완화(23.1%),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10.8%) 순
- 중국 리오프닝의 부정적 영향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48.3%), 대중국 수출효과 크지 않을 것(41.7%),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9.2%) 순

● 중국 리오프닝을 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사업지원보다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위한 외교적 노력 주문

-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8.2%),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 관계 개선(36.2%),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11.8%),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6.6%), 중국 내 무역장벽 기술규제 완화(6.6%) 순

Ⅲ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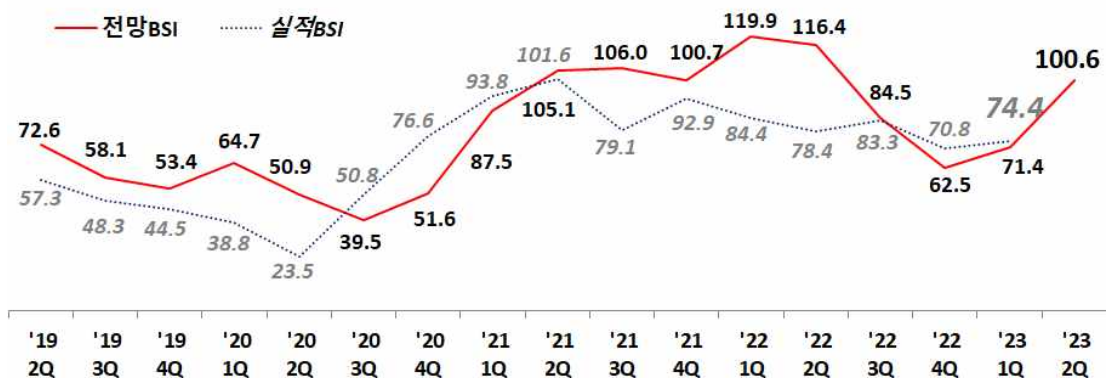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2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강보합인 '100.6'으로 조사되어, 4개 분기 만에 기준치(100)를 상회했음.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하면서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공급망 불안정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전망과 자동차 부품, 방산기계류를 중심으로 경기호전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기업의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3고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경기회복을 점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는 기준치를 한참 밑돈 '74.4'로 조사되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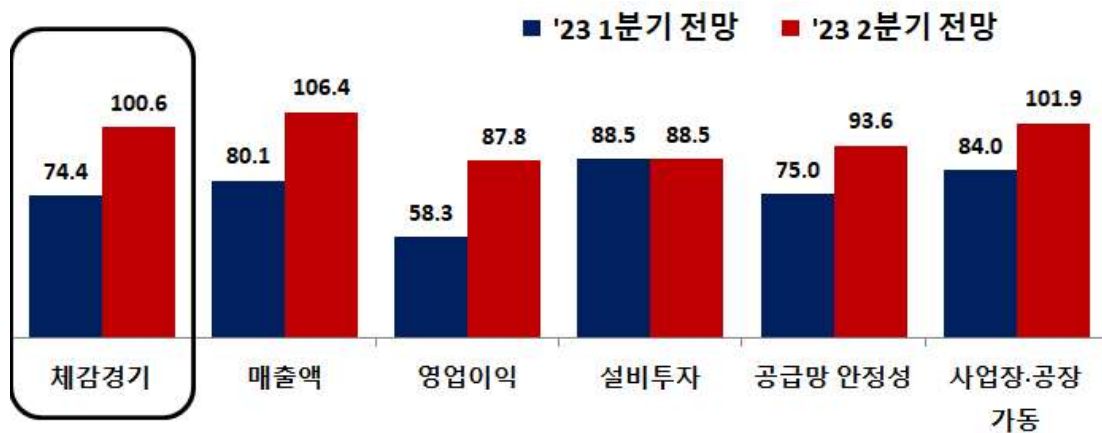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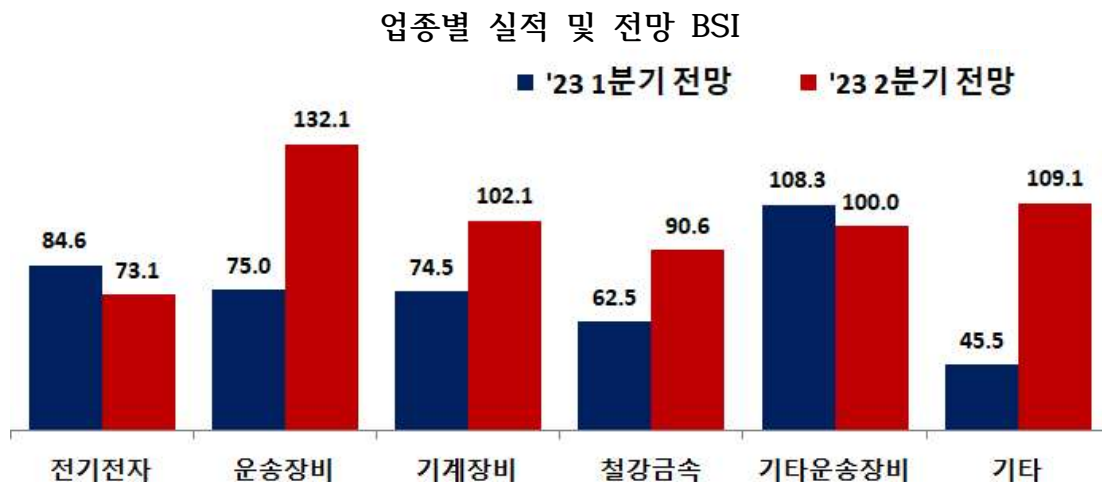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106.4), 사업장·공장 가동(101.9) 등 생산활동 부문의 지수는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 공급망 안정성(93.6), 설비투자(88.5), 영업이익(87.8) 등은 기준치를 하회했음.
- 2023년 1분기 항목별 실적BSI의 경우 설비투자(88.5), 사업장·공장 가동(84.0), 매출액(80.1), 공급망 안정성(75.0), 영업이익(58.3)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밑돌았음.
- 2022년 2분기부터 본격화된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악재 지속과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수익률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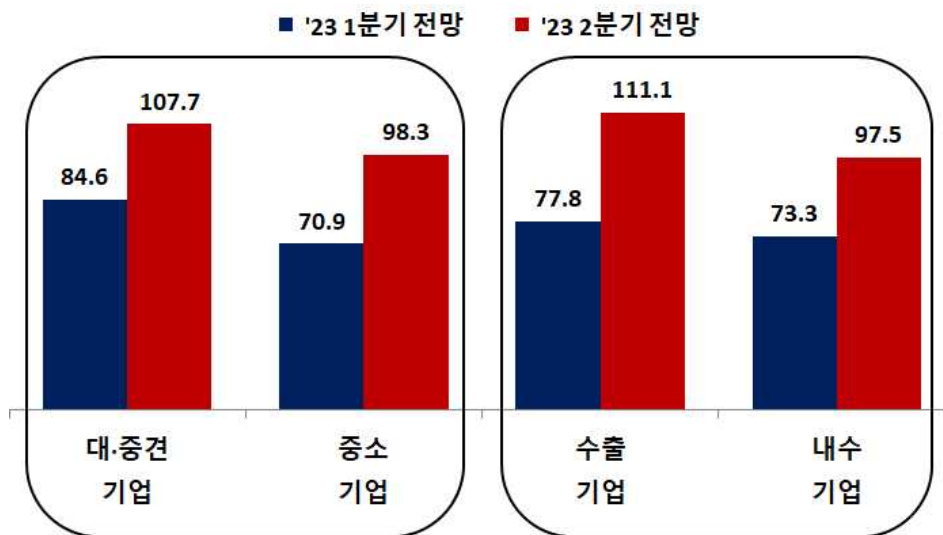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2분기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자동차부품 등 운송장비제조업(132.1)임. 기계장비제조업(102.1)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100.0)의 경우 지수보합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철강금속제조업(90.6)과 전기전자제조업(73.1)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국내 완성차의 내수 및 수출 실적 증가세에 따른 생산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방산기계류 업종을 중심으로 2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기조가 겹쳐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 금속제품 제조업과 국내외 소비심리 악화와 계절적 비수기를 겪고 있는 전기전자제조업의 경우 지난 분기에 이어 2023년 2분기에도 부정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음.
- 2023년 1분기 업종별 실적BSI는 기타운송장비(108.3)를 제외한 전기전자(84.6), 운송장비(75.0), 기계장비(74.5), 철강금속(62.5)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대·중견기업군(107.7)과 수출위주기업(111.1)군에서 2023년 2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소기업(98.3), 내수위주기업(97.5)군은 2023년 2분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 규모별·매출형태별 1분기 실적BSI의 경우 대·중견기업군(84.6)과 중소기업(70.9), 수출위주기업(77.8), 내수위주기업(73.3) 등 모든 기업군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기업 형태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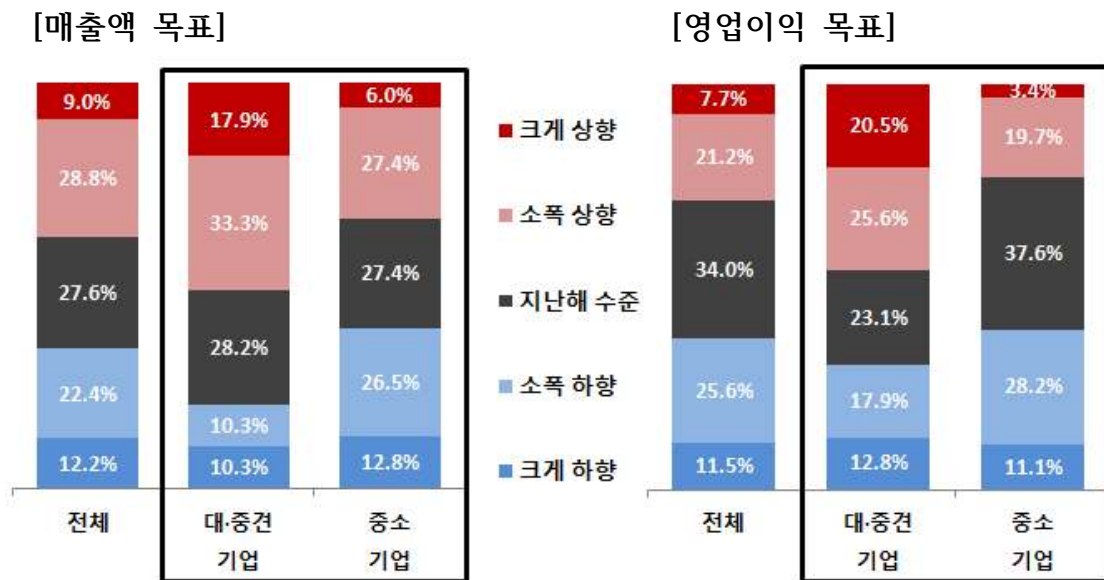


-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과 비교해 실적과 전망 BSI 모두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형태별로는 전망치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실적치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4. 연간 목표치 달성 여부와 국내외 요인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목표로 삼은 매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9.0%가 '크게 상향', 28.8%는 '소폭 상향'이라고 답해 37.8%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출액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대로 응답업체의 12.2%는 '크게 하향', 22.4%는 '소폭 하향'으로 답해 34.6%가 올해 목표 매출액을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업체의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51.2%, 중소기업의 경우 33.4%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출 목표로 잡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비교해 올해 매출실적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n=156)



- 매출액 목표에 비해 영업이익 목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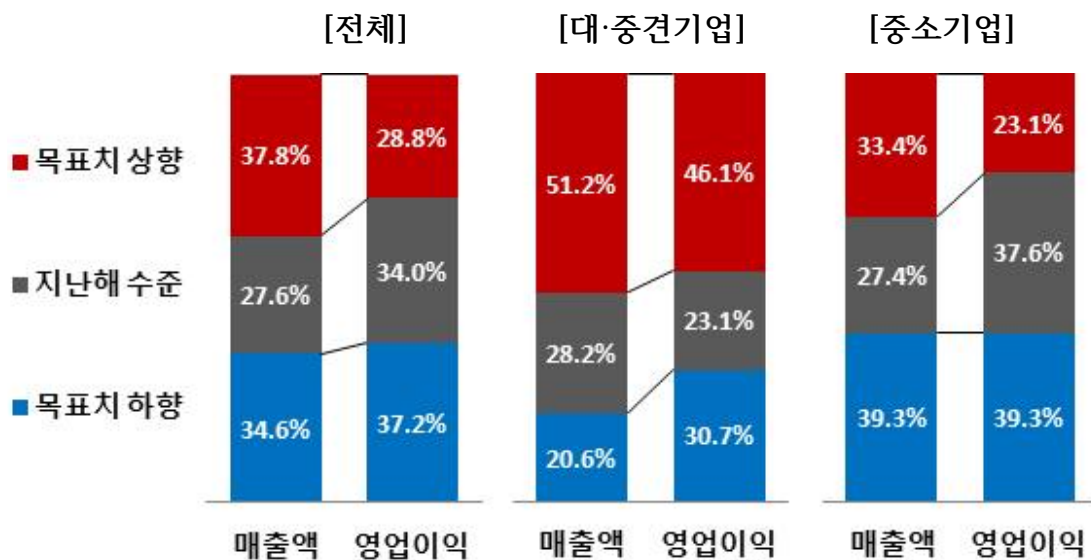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25.6%가 ‘소폭 하향’을 꼽았고, 11.5%는 ‘크게 하향’이라 답했음.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보다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음.

○ 다만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중견기업은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을 목표로 잡은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상향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자동차, 방산기계류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시장회복과 확대로 매출액과 공장가동률의 증가가 기대되지만, 고금리, 고환율의 상황이 연내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온전한 공급망 회복이 더딘 상황에 있어 영업이익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매출액 목표 대비 영업이익 목표치를 보다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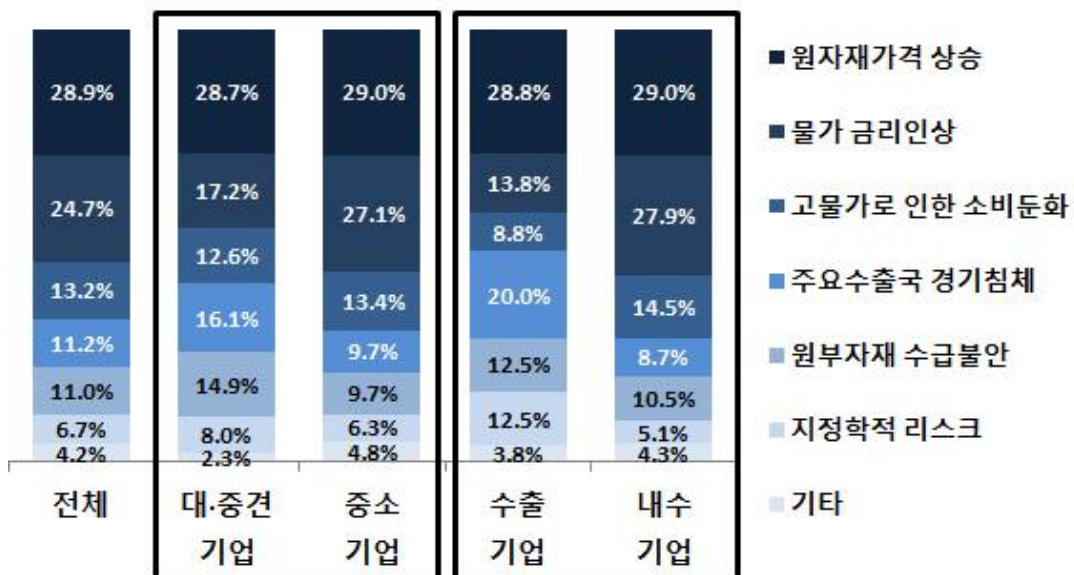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n=156)



5.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

-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38.9%)과 ‘물가, 금리 상승’(24.7%)을 꼽았음. 다음으로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3.2%),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1.2%), ‘원부자재 수급불안’(11.0%), ‘지정학적 리스크’(6.7%), ‘기타’(4.2%) 순으로 답했음.
- 다수의 응답업체가 채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가격, 물가, 금리를 꼽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이 지목하는 위험요인에 ‘원자재가격 상승’, ‘물가, 금리 상승’을 각각 56.1%, 5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음.
한편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28.8%)에 이어 ‘주요수출국 경기침체’(20.0%)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 (n=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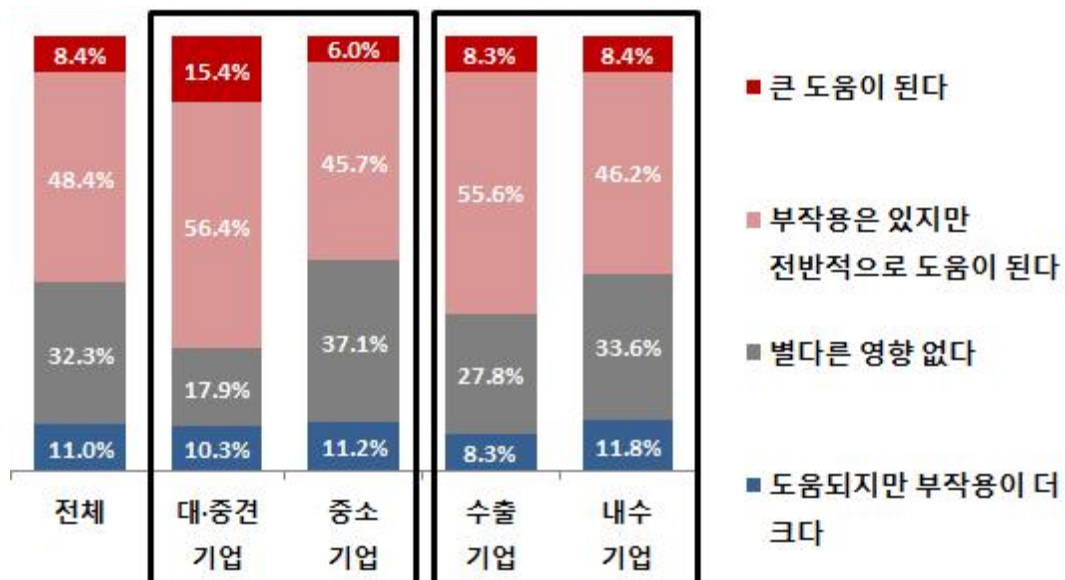
VI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영향

1. 중국 리오프닝이 창원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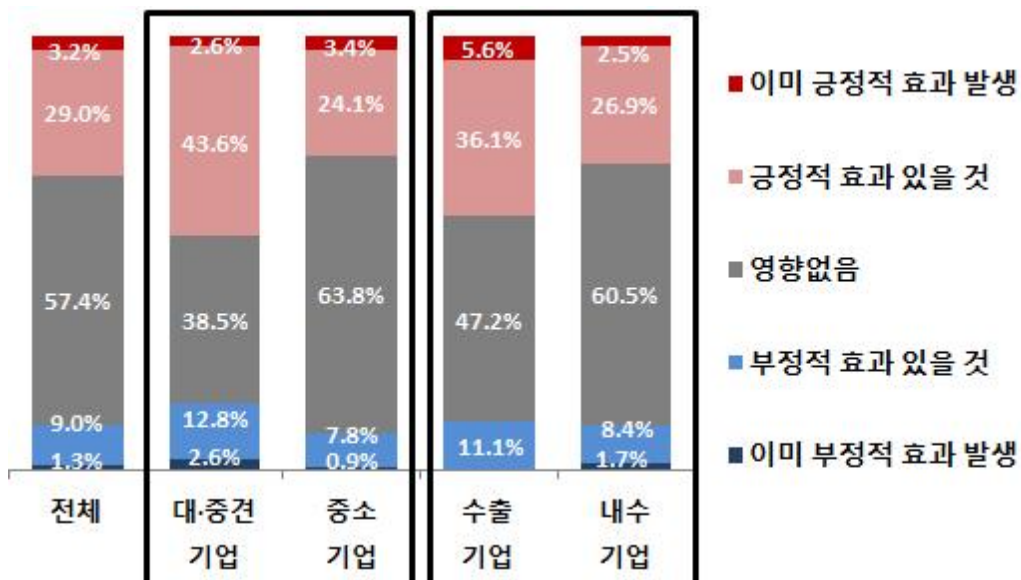
- 지난해 12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중국의 리오프닝이 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4%는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8.4%는 '부작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해 56.8%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32.3%는 '별다른 영향 없다', 11.0%는 '도움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답했음.
-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대·중견기업(71.8%)과 수출기업(6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영향 (n=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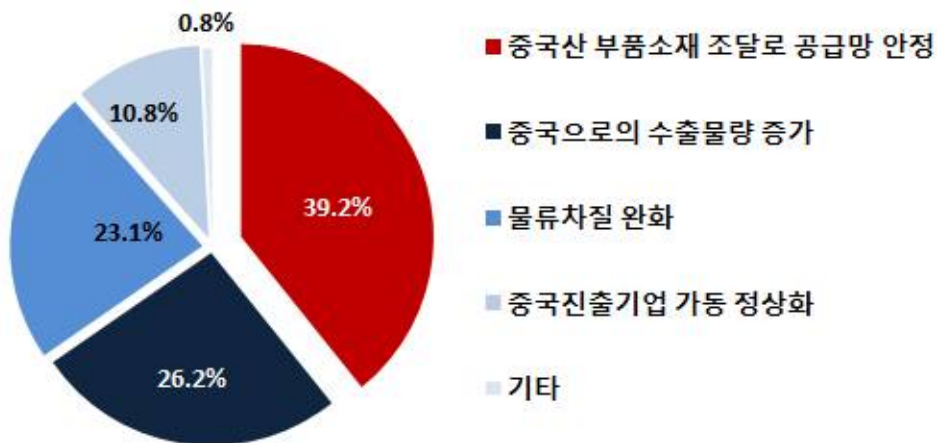
-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실질적인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과반 수 이상인 57.4%가 ‘영향 없음’으로 답했고, 긍정적 효과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2.2%에 그쳤음.
-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여겨지지만, 당장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의 호전으로 바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응답 결과를 내놓았음.
- 이는 과거 중국과의 거래 또는 협력 형태가 코로나19와 중국 내 정책의 전환 등으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리오프닝의 영향이 매출 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물류차질 완화 등과 같은 환경개선의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응답비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됨.

중국 리오프닝에 매출·수익 등 경영실적 영향 (n=156)



-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자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의미에서 자사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39.2%가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을 꼽았음. 다음으로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26.2%), ‘물류차질 완화’(23.1%),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23.1%) 순으로 답했음.
- 창원지역 산업은 열연강판, 철강관, 공작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등 중국과의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활동 지연에 따른 조달 애로 및 생산 차질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음. 이에 따라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량 증가 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물류차질 완화 등의 환경변화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 긍정적인 이유 (n=88)



- 반대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8.3%는 ‘원자재와 에너지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이라 답했

고, 41.7%는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대다수를 차지했음. 나머지 9.2%는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0.8%는 ‘기타’로 답했음.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 없거나, 부정적인 이유 (n=68)



-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산업활동이 재개되고, 원자재의 수요가 커지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철강재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는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및 조립 후 재수출하는 창원지역 산업에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산업활동이 재개하게 되면, 국제원자재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또 코로나19 이전 활발한 산업내 무역을 펼쳐왔던 창원지역과 중국이 지금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비즈니스 규모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응답 비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2. 중국 리오프닝을 기회로 삼기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8.2%),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 관계 개선’(36.2%)을 응답업체의 대다수가 꼽았음. 다음으로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1.8%),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6.6%), ‘중국 내 무역장벽 기술규제 완화’(6.6%) 순으로 답했음.
-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의 대중국 사업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중국 리오프닝을 기회로 삼기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n=156)

